

“의료체계, AI 시대 대변혁 직면… 규제·인프라 선도해야”

한림대의료원 ‘일송학술심포지엄’

AI로 변하고 있는 사회 양상 조명
다수 강연자들 제어 필요성 지적
최양희 총장 “세계 연대 참여해야”

한림대학교 의료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미래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일송학술심포지엄’에서 문영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송호근 도현학술원장,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배순훈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조현찬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일송학술심포지엄’에서 문영식 한림성심대학교 총장, 김용학 전 연세대 총장, 송호근 도현학술원장, 윤대원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장,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 배순훈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 윤희성 학교법인일송학원 상임이사, 조현찬 학교법인일송학원 이사(앞줄 왼쪽부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

뒤 “산업 혁명은 도구의 발전이었다면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든다”고 평가했다. 핵 기술은 스스로 ‘핵 무기’가 되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진화해 또 다른 인공지능을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구가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양희 한림대 총장도 이날 행사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대변혁이 문명을 파괴하고 재정의하는 가운데 모든 분야가 대변동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인공지능을 활용해 변화의 시대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이에 맞는 규제 마련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영국 버킹엄셔 블레츨리파크에서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오픈AI와 구글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업과 영

국, 미국, 한국 등 각국 정부가 인공지능을 출시하기 전에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리시 수석 영국 총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영국이 중개자로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양희 한림대 총장은 “인공지능 안전성과 관련된 국제 논의에서 자수성가하지 않으면 새로운 식민지가 될 수 있다”며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사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21세기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역사학이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문명전환을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성태윤 교수는 “과거에는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현대에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공간적 거리를 극복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네트워크 확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림대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한림대의료원은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통해 가상병원, 검사실 등을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SK바사, 아프리카 등 백신 공급 불평등 해소 ‘앞장’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 협력 논의
안재용 사장 “다양한 정부, 기관 협력”

전 세계가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백신 공급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3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진 카세야 아프리카 질병관리 통제센터 사무총장과 아프리카 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진 카세야 사무총장에게 ‘아프리카 백신 제조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시한 ‘글로벌라이



지난 3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에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진 카세야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 사무총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제이션 전략은 백신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에 연구개발(R&D) 및 생산 기반을 이식하는 사업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7월

태국 정부 산하 국영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13년 만에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세르비아

총리와 ‘글로벌라이제이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 카세야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백신 자급화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세계 각국을 순방하고 있다.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의 목표는 오는 2040년까지 지역 내 전체 유통 백신의 60%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질병관리통제센터는 결핵, B형 간염, HIV, 말라리아, 에볼라 등에 대응할 백신을 갖추기 위해 백신 개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춘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아프리카 지역에 생산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이랜드뮤지엄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

이랜드뮤지엄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영화 소품&의상전)을 11월 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캔싱턴호텔 여의도 1층에서 개최한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특별전은 이랜드가 보유한 50여만점의 소장품 중 달콤한 환상의 세계를 표현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 속 소품과 의상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다.

이번 전시 소장품으로는 ‘초콜릿 천국, 1971’의 초대 왕카 ‘진 와일드’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든 티켓’, ‘찰리와 초콜릿 공장, 2005’의 주인공 찰리 ‘프레디 하이모어’의 코스튬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C녹십자의료재단, 인니 등 해외 진출 속도 동아ST, ‘유전자 치료제’ R&D 역량 강화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
건강검진 센터 설립 프로젝트 발표

GC녹십자의료재단이 인도네시아에서 건강검진 센터 설립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10월 3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3 한-인니 메디컬 로드쇼’에 참가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로드쇼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인니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센터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내 의료기관과 기업이 인니 의료 시장에 진출한 사례로, 한국보

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은 인니 현지 파트너사 로커스(Locus)를 비롯해 인니 부동산 기업인 씨뿌뜨라(Ciputra)와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은 “인도네시아는 GC녹십자의료재단 해외 진출의 핵심 지역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세계적인 진단검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메사추세츠 의과대 공동연구 추진

동아에스티가 합성신약 부문의 강점을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는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의과대학과 아테노부속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아테노부속바이러스에 탑재한 유전자의 약효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공동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면역 질환 중 만성 염증성 질환을 위한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한다.

바이러스는 숙주의 면역 체계를 회피하면서 특정 세포에 유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진화해 왔다. 이를 활용해 수정된 유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개발한 것이 바이러스 벡터다.

아테노부속바이러스 또한 유전자 전달체인 바이러스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안정성은 높고 면역반응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바이러스 벡터와 달리 병원성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한편, 이번 계약을 통해 구아핑 교수와 심재혁 교수를 비롯해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청하 기자



임프린투 팝업 매장 모습 /LG생활건강.

LG생건 ‘임프린투’ 팝업매장 운영

LG생활건강이 해외여행에 나서는 고객들이 ‘임프린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LG생활건강은 새로운 뷰티 브랜드 ‘임프린투’ 팝업 매장을 오는 12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팝업 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으로, 위치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동편(209 구역) KA L 라운지 앞쪽이다. /이청하 기자